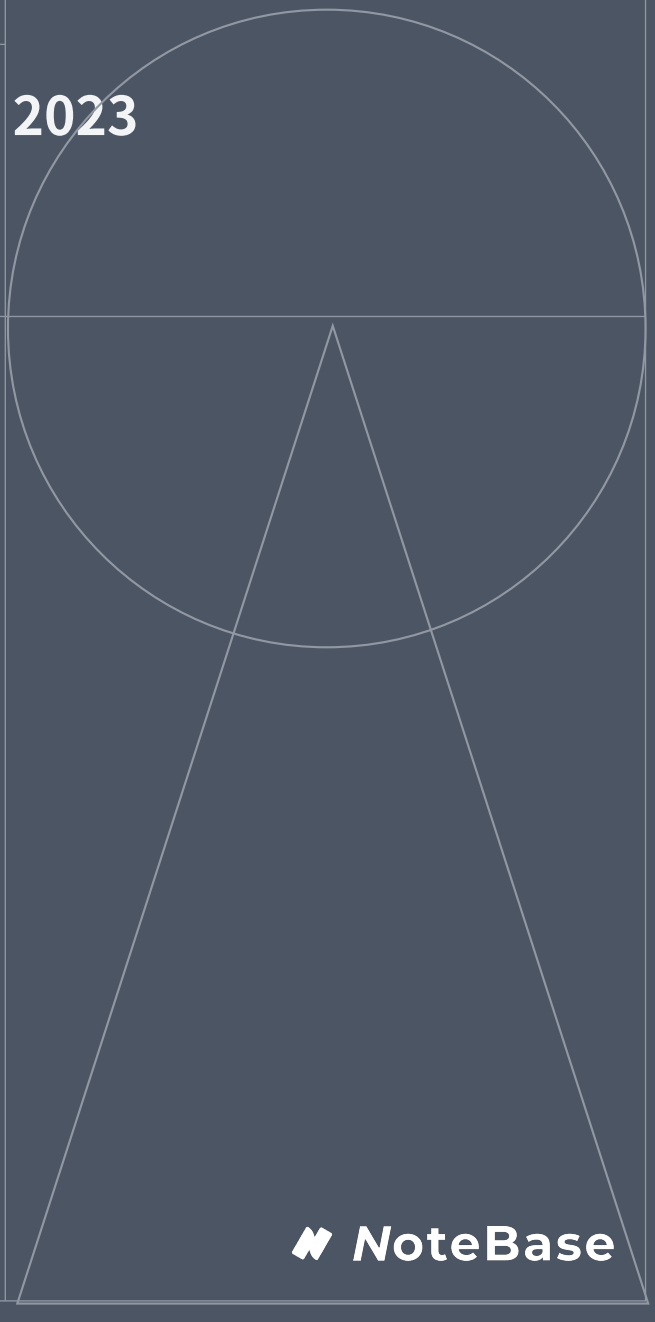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3

공무원/국가직/9급 · 국어 · 2023

문 1. '해양 오염'을 주제로 연설을 한다고 할 때,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포함할 것.
◯ 설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① 바다는 쓰레기 없는 푸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서서히 죽이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우리의 관심만이 다시 바다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갔다가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이 되어 해산물을 섭취하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바다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③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습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

④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고래가 죽어 가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산업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바다는 쓰레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기 쓰레기를 집으로 되가져가자는 말은 **생활 속 실천 방법**이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는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며,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와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설의적 표현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쉽게 예상되는 답을 통해 뜻을 강조하는 의문 형식의 표현이다. 비유적 표현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문제에서는 생활 속 실천 방법, 설의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X: '바다는 … 꿈꾸고 있습니다'는 바다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미세 플라스틱은 …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는 미세 플라스틱을 독에 빗대므로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설의적 표현과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 방법이 없다**. '우리의 관심'만으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같은 행동과 설의적 표현을 보완해야 한다.

② X: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구체적인 생활 속 실천 방법이다. 그러나 사실 설명과 실천 권유만 있을 뿐, 의문 형식으로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 없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 등을 의문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덧붙여야 한다.

③ O: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집으로 되가져가도록 합시다'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 '자기 집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요?'는 답을 묻기보다 자기 집이라면 함부로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또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는 바다를 사람처럼 나타내고, '양심이 모래밭 위를 뒹굴고 있다'는 추상적인 양심을 버려진 쓰레기처럼 나타낸 비유적 표현이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X: '인간도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요?'는 인간 역시 고통받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적 표현이고, '바다는 쓰레기 무덤'은 바다를 무덤에 빗댄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관리 지침 마련과 감독 강화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므로 개인의 생활 속 실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회용품 줄이기나 쓰레기 되가져가기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해야 한다.

NoteBase

문 2.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 팀장: 이번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 대리: 전 반대합니다. 사내 게시판에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임 대리: 저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팀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우려되긴 하네요. 팀원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보고,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① 백 팀장은 팀원들에 대한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② 고 대리는 백 팀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③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백 팀장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여 백 팀장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있다.
④ 임 대리는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백 팀장은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려는 목적**을 밝히며 게시를 제안하고 있다. 팀원들과의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나타내는 **유대감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선지별 해설

① X: 백 팀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게 좋겠어요'라고 자신의 바람을 전달하고,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그 이유를 덧붙인다. 이는 **정보 공유라는 제안의 목적**을 밝힌 것으로, 팀원들과의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유대감을 드러내며 바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게시를 제안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O: 고 대리는 '전 반대합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이어 영상 공개가 부담스럽고 타 부서와 비교될 것 같다고 말하여 **반대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③ O: 임 대리는 발언 초반에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우려를 제시하기에 앞서 **제안의 취지를 인정**함으로써, 백 팀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 준다.

④ O: 임 대리는 '잘된 것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의문문으로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묻는다. 이 질문에는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일부 영상만 시범적으로 게시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NoteBase

문 3. 관용 표현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의 회사는 작년에 노사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십니다.
◯ 유원지로 이어지는 국도에는 차가 밀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 그분은 세계 유수의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리학자이다.

① ㉠: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② ㉡: 오랫동안 일을 하여 그 일에 익숙한
③ ㉢: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④ ㉣: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는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의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매우 빽빽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뜻이다. 차가 가득 들어찬 상태를 나타내며, 돌아서 갈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홍역을 치르다'는 **심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다. 회사가 노사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맥에 맞는 풀이이다.

② O: ㉡의 '잔뼈가 굵다'는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여 그 일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다. 교장 선생님이 교육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음을 나타낸다.

③ X: ㉢의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송곳을 꽂을 틈조차 없을 만큼 **매우 빽빽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는 국도에 차가 가득 밀려 있음을 나타내므로,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가 아니라 '차가 빽빽하여 빈틈이 없었다'로 풀이해야 한다.

④ O: ㉣의 '어깨를 나란히 하다'는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라는 뜻이다. 해당 물리학자가 세계의 뛰어난 연구자들과 견줄 만한 수준에 있음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4. 다음 글에서 (가)~(다)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가)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며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 왔다.

(나)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SNS나 스마트폰 등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 광고에 친구가 '좋아요'를 한 것에서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 쉬운 예로,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쓰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했다.

결국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고객의 취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셜 미디어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다) - (나) - (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의 **'그런 노력'**은 (가)의 마케팅 조사를 가리킨다. (나)의 **'그런 상황'**은 조사와 광고에 돈을 들여도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다)의 상황을 받아, 새로운 데이터로 그 한계를 해결하는 내용을 이어 간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가) → (다) → (나)

(가): 기업들이 고객의 반응·행동·태도를 알기 위해 마케팅 조사에 많은 돈을 투자해 왔다는 내용이다. 도입부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했으므로, 먼저 **기존의 고객 파악 노력**을 제시하여 변화의 배경을 설명한다.

(다): '그런 노력'은 (가)에서 설명한 마케팅 조사 노력을 가리킨다. '그런데'를 통해 그 노력에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전환하고, 광고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는 예를 든다. 따라서 노력의 내용이 먼저 제시된 뒤 **그 노력의 한계**가 나와야 한다.

(나): '그런 상황'은 (다)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을,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은 고객의 반응과 광고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생긴 의문을 가리킨다. SNS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므로 한계를 설명한 뒤에 놓인다. 페이스북 광고의 '좋아요'라는 구체적인 예는 고객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마지막의 빅데이터를 중요한 경영 수단으로 수용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무진(霧津)엔 명산물이…… 뭐 별로 없지요?"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좀 이상스럽거든요."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조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심(水深)이 얕은 데다가 그런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까요."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렇지만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오륙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들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들은 점잖게 소리 내어 웃었다. "원,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웃음 끝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

① 수심이 얕아서 항구로 개발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②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평야가 발달하지 않은 공간이다.

③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은 공간이다.

④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가 유명한 공간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안개를 무진의 명산물이라고 여기는 것은 **서술자 '나'의 주관적 인식**이다. 대화하는 사람들은 무진에 별다른 명산물이 없다고 말하므로, 안개가 누구나 인정하는 명산물로 유명하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대화에서 무진은 수심이 얕고, 그런 얕은 바다가 몇백 리나 이어지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바다가 가까워도 **항구로 발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이므로 선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O: 대화의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에서 평야가 발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라는 서술에서 **산으로 둘러싸인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O: 무진은 별다른 명산물이 없고 항구로 발전하기도 어려우며 이렇다 할 평야도 없다. 그런데도 인구가 오륙만이나 되고,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문을 드러낸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비해 인구가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④ X: 대화하는 사람들은 무진에 별다른 명산물이 없다고 말한다. 그 뒤 서술자 '나'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라고 서술하며 안개를 명산물로 제시한다. 따라서 안개는 **'나'가 명산물로 여기는 무진의 특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산물로 유명하다는 설명은 '나'의 인식을 사람들 모두가 공유하는 평가로 확대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의 입을 막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그것이 그 사람의 첫 외국 여행이었다면, 입 막기는 포기하고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 여행 경험을 들어 주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다.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사실을 _____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들, 그런 수다로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① 刻舟求劍
② 捲土重來
③ 臥薪嘗膽
④ 針小棒大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별것 아닌 사실'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말하는 행위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말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 말함**을 이른다. 사실 자체의 크기나 중요성보다 표현을 과장한다는 데 의미의 중심이 있다.

지문은 첫 외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는 상황이다. '별것 아닌 사실을 _____하거나'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사실을 거창하게 말한다는 뜻이 필요하므로 '침소봉대하거나'가 문맥에 맞는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이 못 오던가 무슴 일로 못 오던가
>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쓱고 성안에 담 쓱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노코 뒤주 안에 궤를 노코 궤 안에 너를 결박(結縛)ᄒᆞ여 너코 쌍(雙)비목 외걸쇠에 용(龍)거북 ᄌᆞ믈쇠로 수기수기 좀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
> 흔 ᄃᆞᆯ이 서른 날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

①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② 날짜 수를 대조하여 헤어진 기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하여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못 오던가'를 거듭 묻고, 한 달 가운데 자신을 보러 올 하루도 없느냐고 따지는 말에서 찾아오지 않는 '너'를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드러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머리에서 '못 오던가'를 반복하고, 중간에서도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가'라고 다시 묻는다. 오지 못할 만한 까닭이 있었느냐고 거듭 따지는 말투로, 찾아오지 않는 '너'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드러낸다.

② X: 한 달이 서른 날인데 자신을 보러 올 하루도 없느냐고 묻는 것은 **그 많은 날 중 하루도 찾아오지 않는 상대를 원망**하는 표현이다. 서른 날과 하루의 대조는 헤어진 기간의 길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③ X: '성 안에 담, 담 안에 집, 집 안에 뒤주, 뒤주 안에 궤'를 잇는 방식으로 앞말을 이어받는 어휘의 연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감정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갇혀 오지 못할 법한 **장애물을 과장하여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찾아오지 않는 상대에 대한 원망을 강조한다.

④ X: 성에서 담, 집, 뒤주, 궤로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그 안에 '너'를 묶어 넣고 여러 자물쇠로 잠갔느냐고 묻는 과장된 상상이다. 공간 축소는 만남의 가능성이 커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가 오지 못할 만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심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오지 않느냐는 뜻으로, 만남의 희망보다 상대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8.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 근육의 특정 움직임을 조작하는 능력을 운동 능력이라고 한다. 언어에 관한 운동 능력은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두 가지인데 모두 표현을 위한 능력이다.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한데, 이는 음성 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영·유아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습득된다. 이렇게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 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되어 음성 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기 능력이 필요하다. 필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서로 구별되게 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글씨를 쓰기 위해 손을 놀리는 것은 발음을 하기 위해 음성 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 데에 (나) 의미한다.

①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② (가):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③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나):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④ (가):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모어의 발음에 맞게 **자동화된 음성 기관의 움직임** 때문에 낯선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렵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일정하다는 것은 필기에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 준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음성 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가 들어간다. 앞부분에서 발음 능력은 영·유아기의 시행착오와 꾸준한 훈련으로 습득되며, 습득한 뒤에는 음성 기관의 움직임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어에 없는 외국어 음성의 발음이 어려운 이유는 **모어의 음성에 익숙한 움직임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는 낯선 음성의 발음까지 이미 익숙해졌다는 뜻이어서, 발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음을'이 들어간다. 필기는 발음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인 활동이지만, '그렇지만' 뒤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이는 손의 움직임에 의식적인 조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동적인 면도 있음을 뜻한다. 필체가 일정하다는 사실은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아니며, 지문에도 그런 설명은 없다.

이 두 내용을 함께 제시한 조합이 ①이다.

NoteBase

문 9. ㉠~㉣ 중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혜인 씨에게 ㉠ 무정타 말하지 마세요.
◯ 재아에게는 ㉡ 섭섭치 않게 사례해 주자.
◯ 규정에 따라 딱 세 명만 ㉢ 선발토록 했다.
◯ ㉣ 생각컨대 그의 보고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무정하다'와 '선발하도록'은 '하' 앞에 울림소리 받침이 있으므로 **ㅏ만 줄고 남은 ㅎ이 뒤의 ㄷ과 합쳐진다**. 이에 따라 각각 '무정타', '선발토록'으로 적는다.

보기별 해설

㉠ O: '무정타'는 '무정하다'의 준말이다. '하' 앞의 받침 ㅇ은 울림소리이므로 ㅏ만 줄고 ㅎ은 남는다. 이 ㅎ이 다음 음절 '다'의 ㄷ과 합쳐져 **ㅌ이 되므로** '무정타'로 적는다.

㉡ X: '섭섭하지'에서 '하' 앞의 받침 소리는 [ㅂ]이다. 받침 소리가 [ㄱ, ㄷ, ㅂ]인 경우에는 **'하' 전체가 줄어들므로** 뒤의 ㅈ이 ㅊ으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섭섭치'를 '섭섭지'로 고쳐 '섭섭지 않게'로 적는다.

㉢ O: '선발토록'은 '선발하도록'의 준말이다. '하' 앞의 받침 ㄹ은 울림소리이므로 ㅏ만 줄고 ㅎ이 남는다. 이 ㅎ이 '도록'의 첫소리 ㄷ과 합쳐져 **'토록'이 되므로** '선발토록'으로 적는다.

㉣ X: '생각하건대'에서 '하' 앞의 받침 소리는 [ㄱ]이므로 **'하' 전체가 줄어든다**. ㅎ이 남아 ㄱ과 합쳐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컨대'로 적지 않는다. '생각컨대'는 '생각건대'로 고친다.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과 ㉢이며, 이 조합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의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정보다 지연되긴 했으나 열 시쯤에는 마애불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맑은 날씨에 빛나는 햇살이 환히 비춰 ㉡불상들은 불그레 물들어 있었다. 만일 신비로운 ㉢경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지 모르겠다. 꼭 보고 싶다는 숙원이 이루어진 기쁨에 가슴이 벅차 왔다. 아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토막으로 남을 것 같다.

① ㉠: 到着
② ㉡: 佛像
③ ㉢: 境地
④ ㉣: 記憶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의 '추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으로 **追憶**이라고 쓴다. 記憶은 '기억'의 한자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의 '도착'은 목적한 곳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到는 '이를 도', 着은 '붙을 착'으로, **到着**은 마애불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는 문맥에 맞는 표기이다.

② O: ㉡의 '불상'은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 형상이다. 佛은 '부처 불', 像은 '모양 상'이므로 **佛像**으로 쓴다.

③ O: ㉢의 '경지'는 여기서 감상이나 체험을 통해 느끼는 일정한 상태를 뜻한다. 境은 '지경 경', 地는 '땅 지'이므로 **境地**로 쓴다.

④ X: ㉣의 '추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그렇게 떠오르는 지난 일을 뜻한다. 追는 '쫓을 추', 憶은 '생각할 억'이므로 **追憶**으로 고쳐야 한다. 記憶은 '기억'으로 읽으며,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머릿속에 간직하거나 되살려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한마디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① 인간의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③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④ 프레임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맥락이나 평가 기준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글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 **프레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는 해석은 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글에서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하며, 항상 어떤 맥락이나 가정 아래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이 맥락이나 가정이 프레임이므로, 정신 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O: 글은 사람이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고 설명한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점이나 평가 기준을 거쳐** 바라본다는 뜻이다. 선지의 '편향성'은 이처럼 어떤 관점이나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③ X: 글은 프레임을 **모든 지각과 사고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설명한다. 마지막 문장도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따라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때 전제하는 맥락과 관점'으로 고쳐 이해해야 한다. 지각과 사고의 확장을 위해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④ O: 글의 첫 두 문장은 지각과 생각이 일어나는 **맥락·관점·평가 기준·가정**을 프레임이라고 정의한다. 지각과 생각이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한다고 했으므로, 프레임을 정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나 평가 기준으로 설명한 것은 글의 정의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항공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동조종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다. 보잉의 경우, 조종사가 대개 항공기를 조종간으로 직접 통제한다. 조종간은 비행기의 날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조작한 대로 반응한다.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간 대신 사이드스틱을 설치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조종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다. 보잉사를 창립한 윌리엄 보잉의 철학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다.”이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베테유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한다. 베테유는 이런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에어버스를 설계함으로써 조종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 것이다.

①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②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만 윌리엄 보잉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③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조종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④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조종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종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여 조종사에게 최종 통제 권한을 부여한다. 에어버스는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둘째 문단에서 윌리엄 보잉은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으므로 컴퓨터가 조종사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본다. 반면 베테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하도록 설계했다. 두 항공기의 설계 차이는 각각 **시스템의 불완전성과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② X: 베테유가 인간의 실수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있다. 그러나 윌리엄 보잉이 조종사에게 최종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지,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윌리엄 보잉의 관점은 '시스템보다 조종사의 판단을 우선한다'로 이해해야 한다.

③ X: 첫째 문단에서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감시하고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선지는 통제 관계를 거꾸로 서술했다. 지문에 따르면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컴퓨터의 감시와 제한을 받으며 항공기를 조종한다.

④ X: 지문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를 자동조종시스템의 '활용 정도'로 제시하고, 보잉의 조종사가 '대개' 직접 조종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자동조종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보잉은 자동조종시스템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항공기의 최종 통제 권한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점으로 설명해야 한다.

NoteBase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목도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하지만 두 감정을 야기한 원인을 따져 보면 두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공포는 실재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명확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와 불안의 감정은 둘 다 자아와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도 차이를 찾을 수 있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불안의 경험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경우에는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②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③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④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걱정이다. 지문은 이러한 감정을 불안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신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아는 것은 지문에서 설명한 **공포**에 해당한다. 불안은 앞으로 위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감정이다. 지문은 두 감정을 원인에 따라 구분하므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면 불안감이 공포감보다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없다.

② O: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고의 가능성**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미래의 불명확한 위협에서 비롯되는 불안에 해당한다.

③ X: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감정은 실재하는 객관적 위협에서 비롯되는 공포가 아니라 **불안**에 해당한다.

④ X: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공포감은 크고 불안감은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문에 따르면 두 감정을 함께 느끼거나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의 사고 경험으로 앞으로 다시 사고를 당할까 걱정한다면 불안에 해당하므로, 과거의 경험과 현재 두 감정의 크기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학 혁명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 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천문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모든 천체는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천체들의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이를 행성의 역행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 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원, 즉 주전원(周轉圓)을 따라 공전 궤도를 그리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서서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간한 일이다.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놓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

① 과학 혁명 이전 시기에는 천동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②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③ 천동설과 지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④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행성의 역행 운동을 **천동설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기존 설명을 유지하려 했으므로, 지동설을 지지하고자 만들었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에서 과학 혁명 이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당시 천동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진술은 글과 부합한다.

② X: 첫째 문단에서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이 종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행 운동을 관찰하고도 이를 **천동설로 설명하고자** 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 지구 중심의 원 궤도 위에 중심을 둔 또 다른 원인 주전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지동설을 지지하고자'는 '천동설로 행성의 역행 운동을 설명하고자'로 고쳐야 한다.

③ O: 첫째 문단의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고, 둘째 문단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지구 대신 태양을 중심에 둔다. 두 설명은 **우주의 중심을 지구와 태양 중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④ O: 둘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행성들의 운동을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다고 밝힌다. 비교 방향을 바꾸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이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였다는 뜻이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인 것은?

① 저기 보이는 게 암염소인가, 수염소인가?

② 오늘 윗층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가신대요.

③ 봄에는 여기저기에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른다.

④ 그는 수업을 마치면 으레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으레'는 '으례'에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말이다. 문장에서는 **'틀림없이 언제나'**라는 뜻으로, 수업 후 친구들과 운동하는 일이 늘 반복됨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염소'는 **'숫염소'**로 고쳐야 한다. 수컷을 나타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양, 숫염소, 숫쥐'는 예외적으로 '숫-'을 쓴다. 따라서 암염소와 대비되는 수컷 염소는 '숫염소'라고 한다.

② X: '윗층'은 **'위층'**으로 고쳐야 한다. '위'와 '아래'가 대립하는 말에서는 보통 '윗-'을 쓰지만,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위-'를 쓴다. '층'의 첫소리 'ㅊ'은 거센소리이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③ X: '아지랭이'는 **'아지랑이'**로 고쳐야 한다. '아지랭이'는 뒤의 'ㅣ' 모음에 영향을 받아 앞의 'ㅏ'가 'ㅐ'로 바뀐 'ㅣ' 역행 동화 형태이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아지랑이'를 표준어로 삼는다.

④ O: '으레'는 '으례'에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말이다.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또는 '틀림없이 언제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이 문장에서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친구들과 운동을 한다는 뜻이므로 문맥에도 맞는다.

NoteBase

문 16. ㉠~㉤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난독(難讀)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은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 즉 '정교한 독서'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精讀'이다. '精讀'은 '바른 독서'를 의미하는 '正讀'과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 무엇이 정교한 것일까?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독(精讀)의 결과로 생기는 어문 실력이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발달하면 결국 독서 속도가 빨라져, '빨리 읽기'인 속독(速讀)이 가능해진다.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빛을 발한다. 짧은 시간에 같은 책을 제대로 여러 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정속독(正速讀)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정독이 생활화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속독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뭐든지 확실히 읽고 빨리 이해한다. 자연스레 집중하고 여러 번 읽어도 빠르게 읽으므로 시간이 여유롭다. ㉣정독이 빠진 속독은 곧 빼먹고 읽는 습관, 즉 난독의 일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을 '다르게 읽지만 뜻이 같다'로 수정한다.

② ㉡을 '정독(正讀)'으로 수정한다.

③ ㉢을 '정속독(精速讀)'으로 수정한다.

④ ㉣을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수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를 뜻하므로, '정교한 독서'를 나타내는 **精讀**과 '빨리 읽기'를 나타내는 速讀을 결합한 **정속독(精速讀)**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精讀과 正讀은 모두 '정독'으로 읽지만, 지문에서 각각 '정교한 독서'와 '바른 독서'를 뜻한다. 따라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② X: ㉡ 앞의 '모든 단어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뜻을 새기며 자세히 읽는 **정교한 독서**를 설명한다. 따라서 '바른 독서'를 뜻하는 正讀으로 바꾸지 않고 정독(精讀)을 유지해야 한다.

③ O: ㉢ 바로 앞에서 정속독을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라고 풀이했다. 지문에서 '정교한 독서'의 한자는 精讀이고, '빨리 읽기'의 한자는 速讀이다. 두 의미를 함께 나타내려면 正速讀의 正을 **精으로 바꾸어 精速讀**으로 써야 한다.

④ X: 글은 정독으로 문해력을 기른 뒤 속독이 가능해지며, 빨리 읽기는 정독을 전제로 할 때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경계하는 것은 **정교하게 읽지 않은 채 빨리 읽는 것**이므로 '정독이 빠진 속독'을 유지해야 한다. '속독이 빠진 정독'으로 바꾸면 자세히 읽되 빠르게 읽지는 않는 독서를 난독이라고 하게 되어 글의 취지와 어긋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막바지 뙤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지금은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천지(天地)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히 빨려 들게 하구나.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맑은 구름만 눈이 부시게
하늘 위에 펼치기만 하노니.

—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

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 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은 고요함을 소리로 표현한 **역설적 표현**이다. 매미 울음이 그친 뒤의 정적을 실감 나게 드러낸 것으로, 속뜻과 반대로 말하는 반어법과는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미 울음이 '한여름 무더위를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는' 곧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라고 한 데서, 요란한 울음이 그치고 갑자기 고요해진 변화가 드러난다. 이 변화를 매미 소리와 그 뒤의 정적이라는 **청각적 감각**으로 제시한다.

② O: '매미 울음', '쟁쟁쟁', '그늘의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뙤약볕', '맑은 구름', '눈이 부시게'는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로 매미 울음 뒤의 고요함을 그린 뒤, **자연 현상에서 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③ O: 2연은 '사랑도 어쩌면 / 그와 같은 것인가'라고 하며 자연 현상과 사랑을 연결한다. 사랑이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쏟아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 맑은 구름만' 펼쳐 놓는다는 표현은 **격렬하게 몰아친 뒤 평온해지는 사랑의 양상**을 드러낸다. 소나기와 맑은 구름의 대비가 사랑의 격정과 그 뒤의 고요함을 보여 준다.

④ X: 반어법은 표현의 겉뜻과 실제 전달하려는 뜻을 반대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은 고요함을 뜻하는 '정적'과 소리를 나타내는 '쟁쟁쟁'을 결합한 **역설적 표현**이다. 겉으로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매미 울음이 사라진 뒤 오히려 귀에 쟁쟁하게 느껴지는 고요함을 드러낸다. 따라서 '반어법'은 '역설적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루카치는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 개념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시대에서 후대로 갈수록 총체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인간들이 그리스와 트로이 두 패로 나뉘어 전쟁을 벌일 때 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패로 나뉘어 전쟁에 참여했다. 둘째는 '비극의 시대'이다.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총체성이 흔들려 신과 인간의 세계가 분리된다. 하지만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이어져 있다. 비극에서 신은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그저 전달하는 존재로 바뀐다. 셋째는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여서 신탁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신의 세계는 인격적 성격을 상실하여 '이데아'라는 추상성의 세계로 바뀐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그 사이에 어떤 통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되었다.

① 계몽사상은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② 플라톤의 이데아는 신탁이 사라진 시대의 비극적 세계를 표현한다.

③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시대로 구분하였다.

④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오디세이아』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된 서사시**이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두 세계가 분리되어 신탁으로만 이어지므로, 『오디세이아』에서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더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은 서사시의 시대 다음에 비극의 시대를, 그다음에 철학의 시대를 제시한다. 계몽은 신탁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철학의 시대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계몽사상이 서사시에서 철학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인과 관계는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X: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극의 시대가 아니라 철학의 시대**에 해당한다. 비극의 시대에는 신과 인간의 세계가 신탁이라는 통로로 이어져 있다. 반면 철학의 시대에는 그 통로마저 사라지고, 인격적 성격을 잃은 신의 세계가 추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바뀐다.

③ X: 루카치가 세 시대를 구분한 기준은 각기 다른 기준이 아니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인 '총체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이다. 서사시의 시대에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고, 비극의 시대에는 흔들리며, 철학의 시대에는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④ O: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의 시대에 속하며, 신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로 얽혀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는 신이 인간의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탁을 통해 뜻만 전달한다. 따라서 **두 세계가 하나로 얽힌 『오디세이아』**에서 신탁으로만 연결되는 비극보다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몽유록(夢遊錄)은 '꿈에서 놀다 온 기록'이라는 뜻으로, 어떤 인물이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꿈을 꾼 인물인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한다.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그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16~1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참여자형이 많다.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①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 몽유록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②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③ 몽유자가 모임의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④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몽유록은 참여자형에 해당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현실 비판에 함께 나서는 것은 16~17세기에 많았던 **참여자형**의 특징이다.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구경꾼의 위치**에 서며, 몽유록도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몽유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몽유록을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구분한다.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받아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하면 참여자형**이고, 모임을 엿볼 뿐 참여하지 않으면 방관자형이다.

② X: 16~17세기에 많았던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논의하고 비판한다. 반면 주로 17세기 이후에 창작된 방관자형에서는 **현실 비판에 함께 나서지 않고 구경꾼의 위치에 선다**. 따라서 나중 시기에 현실 비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은 글의 흐름과 어긋난다.

③ O: 몽유자가 구경꾼 역할을 하는 유형은 방관자형이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이 시기의 몽유록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몽유자의 역할 변화와 연결한다.

④ O: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며 현실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한다는 선지의 설명은 이러한 참여자형의 특징에 부합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반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용자는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가상 세계에 데이터를 전송, 취합, 분석, 이해, 실행하는 과정은 실제 실험보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

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이 향상되었다.

②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각종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③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④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현실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글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다. 고용률이 향상되었다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② X: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과정이 실제 실험보다 빠르고 정밀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고 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실제 실험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사물·공간·환경·공정 등을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복제하고, 현실 세계와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이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현실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

④ X: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목적**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복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활용 목적이 구별된다.

NoteBase